

로그인부터 자산관리까지 '고객 맞춤'

KB국민은행의 모바일뱅킹 '새로운 KB스타뱅킹'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10년 4월 출시해 1760만 명의 고객이 선택한 기존 KB스타뱅킹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나(고객)'를 위한 맞춤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은행을 넘어 계열사 및 외부 제휴서비스까지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자동로그인으로 로그인 절차 생략
홍화면 맞춤 재배치, 편의성 높여
고객 데이터 활용 맞춤 자산관리도
"기존보다 편리" 고객반응 긍정적

●자동로그인·홈 화면 개인화로 편의성 개선

먼저 속도와 편의성을 개선한 것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자동로그인 기능 도입, 이체 편의성 개선, 홈 화면 개인화 등을 구현했다.

자동로그인 기능을 이용하면 로그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앱을 실행하면 별도의 인증 단계 없이 아이콘 터치만으로 원하는 거래를 빠르고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다. 해당 기능을 통해 200만 원 이하의 소액 이체 등 빠른 거래가 가능하다. 뱅킹 앱의 주요 기능인 이체 편의성을 위해 거래 내용을 입력한 뒤 다음 거래 화면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업데이트했다.

홈 화면에서는 대표 계좌를 설정할 수 있어 원하는 계좌를 등록해 잔액 확인과 이체를 빠르게 할 수 있다. 계좌 등록은 KB국민은행 상품뿐 아니라 타 은행, 증권, 저축은행 계좌 등 최대 5개까지 가능하다. 개인화된 금융 경험을 위해 홈 화면은 맞춤형 배치가 가능하다. 고객



취향과 선호에 따라 재배치함으로써 나만의 홈 화면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고객중심 제안형 자산관리 서비스 신설

KB국민은행의 자산관리 노하우를 담아 고객중심의 제안형 맞춤 자산관리 서비스인 '마이자산관리'도 신설했다. 투자성향, 자산규모, 보유상품 등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마이자산관리는 은행 자산 외에도 타 금융사 및 비금융 자산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증권, 보험 등의 거래 정보 및 부동산과 자동차 등 비금융 자산정보까지 활용해 고

객의 자산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또 고객별 자산관리 특성을 8가지로 분류해 유형에 맞는 정교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위험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해외주식종목 추천 콘텐츠 및 ETF 상품 추천 등을 통해 공격적 투자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더불어 기존 상품추천 위주의 자산관리에서 벗어나 세테크, 부동산상담, 상속, 은퇴준비 등 다양한 관리 서비스도 마련했다. 보유 자산 분석 후 남아있는 절세 한도를 찾아 주고 상속 또는 증여 시 절세 상담도 해준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에게는 부동산 투자 관련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

또 고객이 보유한 연금 자산을 진단하

고 예상 월 수령액과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계산해 추가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퇴준비를 돕는다.

●확장형 종합금융플랫폼으로 도약

KB금융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확장형 종합금융플랫폼으로서 고객에게 토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매력 포인트다. KB증권의 'Easy 주식 매매' 서비스, KB국민카드의 'KB페이 간편결제', KB손해보험의 '스마트 보험금 청구' 등 KB금융 6개 계열사의 핵심 서비스를 한번에 만날 수 있다.

이밖에도 전문가의 부동산, 재테크, 세무 관련 칼럼 및 유튜브 등 유용한 콘텐츠와 혜택도 챙겨준다.

고객 반응도 긍정적이다. "기존보다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고 계좌이체 입력이 좀 더 편리해졌다", "전체 메뉴 구성도 한눈에 보기 쉬워져 눈의 피로도가 줄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에 화면 전환 시 스타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 소소한 시각적 즐거움을 준다", "메뉴의 경우 큰 카테고리 안에 세부 메뉴들이 들어가 있어 원하는 기능을 찾기 쉽다", "검색 기능 및 상담 챗봇 이용이 편리하다", "검색 시 하단에 관련 검색결과가 따로 편리하다" 등이 대표적인 고객 의견이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미래의 금융은 고객의 일상에 녹아들어난 '초 개인화된 생활금융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금융과 비금융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를 KB의 플랫폼 생태계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새로운 KB스타뱅킹'과 젊은 세대에 특화된 '리브 넥스트'를 경쟁력 있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키울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iyaydonga.com



이선영 롯데카드 데이터사이언스팀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윤한호 미래에셋증권 데이터랩팀장(왼쪽부터)이 시상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카드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롯데카드-미래에셋증권 우수상 수상

롯데카드와 미래에셋증권이 '2021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금융결제원 원장상)을 수상했다.

가명정보란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와의 결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를 말한다. 이번 대회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해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확대를 목표로 올해 처음 열렸다.

양사는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비·투자 변화 분석'에 가명결합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를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소비와 투자 흐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롯데카드의 '고객 소비 데이터'와 미래에셋증권의 '고객 투자 데이터'를 결합해 국민의 경제 활동을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이트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주력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연구 결과를 12월 오픈 예정인 데이터 분석 및 거래 플랫폼 '데이터스'에 공개할 예정이다. 롯데카드는 "향후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다각도로 전개하며 고객의 건강한 금융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롯데카드 2030 MZ세대 고객을 위한 'We LIKE T, NOW(위 라이킷, 나우)' 언택트 콘서트를 진행하며 30일까지 사연 응모를 받는다. 출연 가수는 헤이즈, 옥상달빛, 10CM(십센치)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사연과 함께 가수와 신청곡을 응모하면 된다. 당첨자에게는 사연 남독과 가수의 신청곡 영상을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전체 공연 영상은 12월 중 롯데카드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신한은행, 고령층 맞춤형 ATM 서비스 선택



신한은행이 '시니어 고객 맞춤형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서비스'(사진)를 선보였다. 큰 글씨, 쉬운 금융 용어, 색상 대비를 활용해 기존 ATM 화면을 개선했다. 안

내 음성도 초당 4음절 가량 속도로 조정할 느린 말 안내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60대 이상 시니어 고객 내점 빈도가 높은 서울 신풐동 등 5개 고객중심 영업점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번호표 발행기 등 디지털 기기에도 시니어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단계별로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완전민영화...유진PE 등 5개사 지분 낙찰

"23년 만에 사실상 완전 민영화"
주주 포함 이해관계자 경영 축진

우리금융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23년 만에 사실상 완전 민영화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22일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낙찰자 결정(안)' 의결을 거쳐 유진그룹 계열 사보펀드(PEF)인 유진프라이빗에쿼티(유진PE), KTB자산운용, 엘라인파트너스 컨소시엄, 압호화폐거래소 압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 우리금융 우리사주조합 등 5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 매각물량은 9.3%이며, 모든 낙찰자들의 입찰 가격은 1만3000원을 웃돌았다. 이는 공자위가 9월 9일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공고 당시 예정했던 최대매각물량 10%에 근접한 물량을 당시 주가(1만800원)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에 매각한 것이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 4%가 낙찰돼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받는 낙찰자는 유진PE, 단 1개사다. 나머지 4곳에는 각각 1~2%씩 돌아갔다. KTB자산운용(2.3%), 엘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 두나무(1%), 우리금융 우리사주조합(1%) 등이다.



서울 중구 우리금융 사옥.

사진제공 | 우리금융

이번 매각이 완료되면 우리금융의 주요 주주와 과점 주주의 지분 구성에 변화가 생긴다. 기존 최대 주주인 예보 지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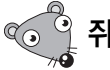
5.8%로 축소돼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해 우리사주조합(9.8%), 국민연금(9.42%)에 이어 3대 주주가 된다. 나머지 과점 주주는 IMMPE(5.57%), 유진PE(4.00%), 푸본생명(3.97%), 한국투자증권(3.77%), 키움증권(3.73%), 한화생명(3.16%) 등으로 구성된다.

공자위 측은 "이번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예보가 아닌 민간 주주가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1998년 옛 한일·상업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23년 만에 완전민영화에 성공하게 된다"며 "이에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이 더욱 촉진될 것이고, 과점 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들이 독립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1월 23일 (화) 음력: 10월 19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오늘은 실속 있는 날이다.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문서 및 서류로 인한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되며,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되므로 명예나 이익의 추구보다는 이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새로운 환경에 들뜨기 쉬운 날이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쉽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복권당첨이나 유산상속의 운이다.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이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여 갈등이 생기고 모험이나 질투로 인하여 고립되는 상태에 놓인다. 자신의 반성과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연히 분주한 날이다.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금전적, 정신적 측면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기이므로 안정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인 자세가 요망 된다. 꿈과 이상이 현실화되기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서로를 욕하고, 후회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얹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움직이는 날이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거나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오늘은 돼지피와의 거래에서 신중해야 한다.	계획을 실현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시들었던 화초가 비를 만나는 날이다.	직업상의 변동과 문서와 연관된 일에서 이득을 찾으려 하는 때이므로 일관된 목표의식을 갖되 주위를 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크게 이득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현상유지만 도모할 뿐이다. 앞서거나 서두르지 말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잘못하면 금전적 낭비가 따른다.	현실에서 모든 것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뒤엎쳐들 일들이 서서히 풀려나며 금전문제도 해결될 것 같은 판단보다 겸허한 마음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지 말라.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명예가 따르고 금전적인 여건도 아울러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과 확고한 자기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분쟁,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다.						